

국어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물음] “제 생각은 당신의 생각과 다릅니다.”와 “제 생각은 당신의 생각과 틀립니다.”라는 표현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국어사전에 쓰인 대로라면, 이런 경우는 ‘틀립니다’가 아닌 ‘다릅니다’를 써야 맞을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틀립니다’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에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오경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답] “제 생각은 당신의 생각과 다릅니다.”라고 써야 합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서로 의미가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르다’는 “생김새가 다르다.”, “서로 성격이 다르다.” 따위와 같이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고, ‘틀리다’는 “계산이 틀리다.”, “이 문제의 답이 틀리다.” 따위처럼 옳지 않거나 맞지 않을 때 쓰는 말로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다르다’를 써야 할 자리에 ‘틀리다’를 자주 쓰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서로 같지 않은 것이므로 ‘다르다’를 써야 합니다.

(1) 쌍둥이도 서로 성격은 틀리지.(×)

→ 쌍둥이도 서로 성격은 다르지.(○)

(2) 어쩐지 모양이 틀린 것 같아.(×)

→ 어쩐지 모양이 다른 것 같아.(○)

(3) 형제가 틀려도 너무 틀리군.(×)

→ 형제가 달라도 너무 다르군.(○)

[물음] “어찌 걱정이 안 되리오/되리요?”라는 표현에서 ‘-리오’와 ‘-리요’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임종호,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답] ‘-(으)리요’는 종결 어미 ‘-(으)리’에 보조사 ‘요’가 결합한 말이고 ‘-(으)리오’는 종결 어미가 그 자체가 쓰인 말로서 둘 다 가능한 표현입니다.

우리말에서 ‘-(으)리’는 아래 (1)처럼 ‘혼잣말에 쓰여, 사리로 미루어 판단하건대 어찌 그러할 것이냐고 반문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요’는 아래 (2)처럼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조사 ‘요’가 주로 해체 종결 어미와 결합하나 일부 해라체나 하계체 종결 어미와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으)리’는 해라체 종결 어미로서 이 어미와도 보조사 ‘요’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한글 맞춤법’ 제17항에서 ‘-어’, ‘-(으)리’, ‘-지’ 따위와 같은 종결 어미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 ㄱ. 어찌 내가 이런 일을 하리?

나. 어찌 그 일을 잊으리?

(2) ㄱ. 돈 한 푼 없어요/지금 바빠요?(해체)

ㄴ. 참 좋지요/그는 어떤 사람이지요?(해라체)

ㄷ. 언제 떠나요?/지금 뭐 하시는데요?(해라체 또는 하계체)

ㄹ.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하계체)

그런데 우리말에는 ‘-(으)리오’라는 종결 어미가 있어 이 또한 다음 (3)처럼 ‘혼잣말에 쓰여, 사리로 미루어 판단하건대 어찌 그러할 것이냐고 반문하는 뜻’을 나타냅니다. 종결 어미 ‘-(으)리오’의 이러한 의미는 종결 어미 ‘-(으)리’가 갖는 의미와 완전히 같습니다.

(3) ㄱ. 어린아이가 얼마나 아프리오?

ㄴ. 내 어찌 아니 떠나리오?

그러나 ‘-(으)리요’와 ‘-(으)리오’는 같은 의미를 갖긴 하지만 높임법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으)리요’는 해요체이고 ‘-(으)리오’는 하오체라서 두 말 사이에는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의 등급에서 다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 높임법의 등급에서 해요체와 하오체가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어서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그 둘이 서로 뒤섞여 쓰이는 경향이 있으나 엄격하게 볼 때에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리오’와 ‘-리요’는 모두 가능한 표현으로서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갖지만 그 둘은 상대 높임법의 등급에서 다른 자리에 있어서 엄격하게는 다르게 쓰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음] “내가 먼저 사과할걸”이라고 했을 때, ‘사과할걸’의 띄어쓰기가 궁금합니다.

(민수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답] ‘사과할걸’은 어간 ‘사과하-’에 어미 ‘-ㄴ걸’이 결합한 말로 ‘사과할 걸’로 붙여 써야 합니다.

그런데 걸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 띄어쓰기가 아래와 같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1)에서는 ‘사과할 것을’이 줄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과할’과 ‘걸’ 사이를 띄어 써야 합니다.

(1) 어차피 사과할 걸(←사과할 것을) 왜 그랬어?

이처럼 비슷해 보이는 경우라 해도 의미나 통사적인 환경에 따라 단일한 어미 ‘-ㄴ걸’로 파악할 수도 있고 관형사형 어미 ‘-ㄴ’과 ‘것을’의 통사적 구성이 줄어진 말로도 파악할 수 있는데 전자는 앞말과 붙여 쓰고 후자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2) ㄱ. 이거 제법 괜찮은 그림인걸(←그림인 것을)!(○)

ㄴ. 이거 제법 괜찮은 그림인 걸!(×)

(3) ㄱ. 멀미 때문에 먹은 걸(←먹은 것을) 다 토했다.(○)

ㄴ. 멀미 때문에 먹은걸 다 토했다.(×)

이러한 예로는 다음을 더 추가할 수 있다.

(4) 내가 먼저 갈 거야(←갈 것이야).

(5)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될 것이야).

[물음] “나는 그 친구를 일 년 만에 만났다.”라고 할 때 ‘일 년 만에’의 띄어쓰기가 궁금합니다.

(이선명,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답] ‘일 년 만에’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년’에 대해 살펴보면 ‘년’은 ‘개년, 개월, 년(간), 일(간), 분(간), 초(간), 시간’ 따위와 같이 ‘시간이나 기간의 폭’을 나타내는 단위 명사로서 그 앞에는 주로 수를 표시하는 말이 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위 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따라서 ‘년’은 수를 표시하는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만’은 앞말에 붙여 쓰는 경우와 띄어 쓰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한정’이나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만’은 붙여 씁니다.

- (1) ㄱ. 너 혼자만 알고 있어라.
 나. 하루 종일 책만 읽었다.
 다. 아무렴 개가 송아지만 할까?

반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만’은 의존 명사로서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이때에는 아래 (2)처럼 주로 ‘~만에’, ‘~만이다’의 꼴로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아래 (3)의 ‘얼마 만에’에서도 시간의 경과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간과 관련된 어느 정도 시간의 경과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말과 띄어 씁니다. 그러나 아래 (4)의 ‘오랜만’은 ‘오래간만’의 준말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지 않습니다.

- (2) ㄱ.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 만에 떠났다.
 나. 그때 이후 삼 년 만이다.

(3) 도대체 이게 얼마 만인가.

(4) 정말 오랜만이군.

[물음] 문상을 하러 가면 상주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상주는 문상 온 사람에게 무슨 말로 인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숙, 서울시 노원구 하계2동)

[답] 문상을 가서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 망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 문상할 때 쓰는 말은 문상객의 상주의 나이, 평소의 친소 관계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화법에 따르면 문상을 가서 고인에게 재배하고, 상주에게 절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예의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말도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더욱 더 깊은 조의를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굳이 말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또는 “뉘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을 할 경우라 하더라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뒤를 흐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여기에는 상을 당하여서는 문상하는 사람도 슬퍼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문상 인사말은 상황이나 문상객과 상주의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문상 인사말에서 그러한 특수한 상황까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상을 가서 “호상(好喪, 복을 누리고 오래 산 사람의 상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혹 문상객끼리라면 몰라

도, 상주에게는 써서는 안 될 말입니다.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시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잘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상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상을 하는 사람이 말로써 문상하지 않는 것이 가장 모범이듯이, 문상을 받은 상주 역시 문상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주는 죄인이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굳이 말을 한다면 “고맙습니다.” 또는 “드릴(올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하여 문상을 와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면 됩니다. “망극하옵니다.”라든지 “시탕(侍湯, 아버지의 병환에 약시중을 드는 일) 한 번 제대로 못하여 드린 것이 그 저 죄스럽습니다.” 하는 등 요즈음 잘 쓰지도 않는 말로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는 것은 오히려 상주로서의 예의가 아닙니다.